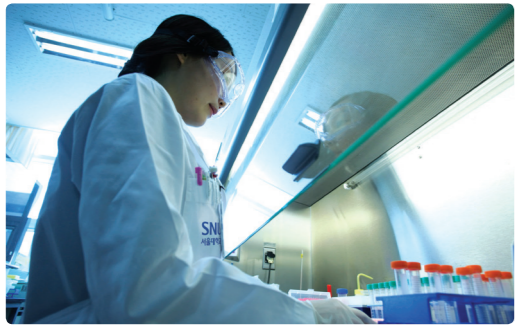


글로벌 암진료를 선도하는 ‘연구중심 암병원’



독보적인 임상시험 및 연구 실적



연구 부문에 있어 서울대학교암병원의 수준은 독보적입니다. 특히 임상시험 분야는 외국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단일기관 임상시험 수행 세계 1위에 등극했으며, 우수한 임상시험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항암제 신약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개연구 분야에서는 임상외학과 기초

의학 간의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암 연구협력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대부분의 소속 교수가 암연구소 등에 연구실을 갖추고 있을 만큼 기초연구에 대한 열정도 뛰어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2014년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돼 다양한 캔서패널(Cancer Panel: 암 유전체 진단법)들을 개발해 왔으며, 앞으로도 연구를 임상에 실용화하는 데 전념할 계획입니다.

센터별 우수한 치료실적

서울대학교암병원의 각 진료센터는 우수한 치료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암센터

국내 최초 간이식 성공, 세계 최초 간암 재발 줄여 생존기간 늘리는 면역치료 효과 입증



대장암센터

국내 최초 복강경 대장절제술 성공, 연간 1천례 이상 수술 시행



위암센터

2007년 위암수술 2만례 돌파, 연간 약 1천례의 위암수술 및 550례의 복강경/로봇수술 시행



유방센터

2011년 유방암수술 1만례 돌파, 유방보존술 적용 환자 70% 상회



폐암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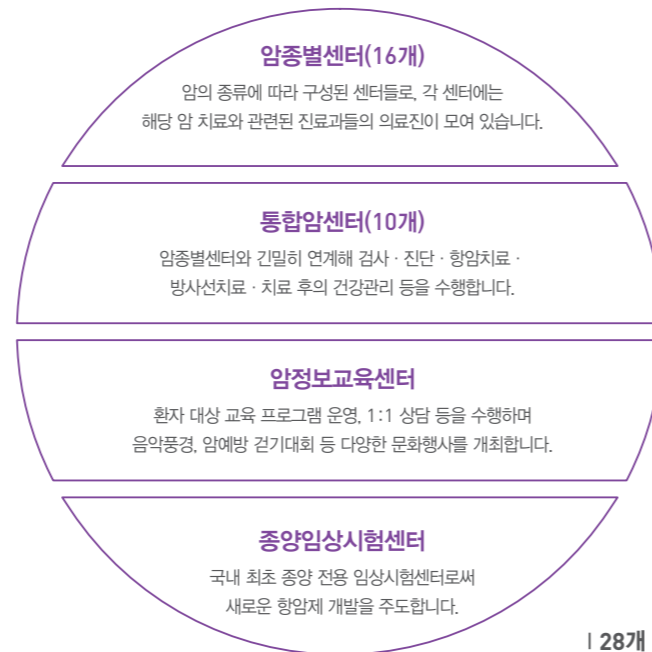
폐암수술 사망률 0.57%, 전체 폐암수술 중 80%를 흉강경으로 수술

최적의 치료 위해 ‘협진하는 암병원’



진료과 중심이 아닌 센터 중심

서울대학교암병원에서의 암 치료는 진료과 중심이 아닌 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여러 진료과 전문의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암병원을 구성하고 있는 28개 진료센터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28개 진료센터 운영

FIRST 협력진료 시행



서울대학교암병원에서는 환자 한 분을 위해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치료 방향을 논의하는 'FIRST 협력진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암은 다른 질환에 비해 치료 과정이 복잡한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치료해야 합니다. 다학제 간 협진을 통해 환자 입장에서 각 과 의사를 만나러 돌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의사 입장에서

관련 진료과의 견해를 신속히 들어보면서 보다 빠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일진료와 검사가 가능한 ‘신속한 암병원’



외래중심·단기입원 시스템 도입

불필요한 입원을 최소화하고 입원 대기를 해소하기 위해 선진국형 외래중심·단기입원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6시간 이내의 시술 및 주사가 필요한 환자는 '외래치료실'이나 '주사치료실'을 이용하고, 12시간 이내의 시술 및 주사가 필요한 환자는 '항암낮병동'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검사와 시술을 위해 입원이 필요한 암환자는 '단기병동'에 입원합니다. 한편 소아별관 2층에는 유방센터 외래·영상센터·소수술실·수납창구가, 3층에는 별관병동이, 4층에는 갑상선센터 외래가 모여있어 긴밀한 협조가 가능합니다.

당일진료·당일검사 시스템 구축

신원/초진의 경우 첫 방문일에 당일진료를 받을 수 있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면 당일검사도 가능합니다. 검사 속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첨단 자동화 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코디네이션을 위해 각 외래센터마다 전담간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암치료 여정에서 포괄적 케어 지원

서울대학교암병원은 질병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한 의료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전체 암 치료 여정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포괄적인 케어를 지원하며, 환자와 가족을 위한 맞춤형 암정보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문화예술을 적극 활용해 정서적인 측면까지 배려하는 등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따뜻한 병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치료를 제공하는 ‘스마트한 암병원’



정밀의학 및 유전체 이용한 맞춤형 암 치료에 주력

서울대학교암병원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정밀의학 분야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주요 암에 대해 암유전자 패널 검사를 시행하여 환자별 맞춤형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암환자의 유전자 변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새로운 바이오마커 및 표적치료제 발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첨단 장비 이용해 진단 및 치료



국내 최초로 MRI와 방사선치료기 동시에 가능한 암 치료기 '뷰레이(ViewRay)'를 도입했습니다. 뷰레이는 MRI 영상을 통해 종양의 위치 및 크기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방사선을 조사하는 치료기입니다. 기존 방사선 치료기는 치료 중 환자 호흡에 따라 종양의 위치가 변할 것을 고려해 조사 범위를 실제 종양 크기보다 넓게 잡아

야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뷰레이는 실시간으로 종양을 확인하기 때문에 환자가 호흡 하면서 암세포 위치가 바뀌어도 그 움직임에 맞춰 암세포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세계에서 4번째로 이 치료기를 도입했으며, 이 밖에도 PET-CT, PET-MRI, SPECT-CT, 사이클로트론 등 다양한 첨단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암병원은

국내 최고의 인술과 환자 맞춤형 진료시스템을 통해 최상의 진료를 편리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고객중심병원입니다. 이를 위하여 당일진료·당일검사시스템, 센터중심 외래진료, 항암단기병동, FIRST 통합진료, 전담간호사 서비스, 세계적 수준의 중앙임상시험, 맞춤형 암정보·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